

기독교 유아의 신앙생활에 관한 문화기술 연구^{*} - 유아부 예배와 자모실을 중심으로 -

민 시 인^{**}

김 미 숙^{***}

논문초록

본 연구는 실제 기독교 유아들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현실적 모습과 그 의미를 문화기술 연구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3명의 유아와 대상 유아 어머니의 신앙생활 및 주일 유아부 예배를 심층면접과 참여관찰을 통해 연구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유아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의 신앙적 표현, 행위 등은 유아에게 모델이 되었으며, 기독교적 가치관은 양육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 전달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주중 교회 참석은 유아의 자모실 참여로 이어져 유아가 신앙생활의 한 부분인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두 번째로, 부모와 유아가 함께하는 주일 유아부 예배에서 유아는 어머니 또는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얻고 있었으며, 이는 유아의 적극적인 예배 참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들은 부모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예배의식에 요구되는 태도와 행동을 지도 받았다. 유아와 부모가 함께하는 예배는 어머니가 교회의 신앙 교육을 가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계하도록 돕고, 유아의 신앙 표현을 잘 이해하여 활발한 신앙의 상호작용을 하도록 돕는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현대 기독교 유아들에게 있어 어머니는 과거의 직접적인 신앙 교육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신앙의 모델 그리고 지원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교회 중심적 생활 패턴은 또래관계의 기회가 적고, 사회적 유대감이 긴밀하지 않은 현대 유아들에게 교제와 사회적 지지망을 제공하고 있었다.

주제어: 기독교, 유아, 문화기술연구, 자모실, 유아부 예배, 교회, 가정, 어머니, 신앙생활

* 이 논문은 2011년도 중앙대학교 연구장학기금 지원에 의한 것임.

** 중앙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석사

*** 중앙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2011년 10월 31일 접수, 12월 21일 수정, 12월 23일 게재확정

I. 서론

기독교 유아의 신앙교육은 항상 강조되어 왔다. 이는 어린 시절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믿음이 성장 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정신적 성숙, 도덕성의 발달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이영주·엄정애, 2008: 2; 정대현 등, 2009: 369). 현재 국내 기독교 유아의 신앙과 교육에 관한 연구는 기독교 가정에서의 유아교육(박지영, 2006; 최병훈, 2009; 장순옥, 2006), 하나님에 대한 개념 및 유아의 종교성, 영성 발달(박신경, 2002; 정정미, 2010; 양금희, 2008),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고찰(박지영, 2006; 신춘화, 2008, 공경혜, 2008)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유아기 전반에 관해 다루고 있으며 다양한 이론적 접근을 통해 기독교 유아의 신앙과 그 교육에 관해 논하고 있다. 이 연구들은 주로 유아기 전 연령에 대해 포괄적으로 설명한 경우가 많았고, 유치부를 시작하는 5-7세 유아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하지만 교회학교의 첫 시작인 영·유아부에 해당되는 0-4세에 관한 연구나 자료는 희박한 실정이다.

A. M. Rizzuto의 경우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하나님 표상 발달의 반영적 구성요소는 어머니의 초기 돌봄과 반응을 통해 최초로 경험된다고 보았다(송수정, 2010: 40). J. E. Loder 또한 생애 초기 1년 반의 시기부터 영적 능력을 의식할 수 있다고 보며, 이 시기 어머니와의 관계가 일차적 종교경험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전은숙, 2010: 38). 또한 기독교인의 신앙발달 이론을 정립한 J. W. Fowler의 경우 그의 저서 ‘신앙의 발달 단계(Stages of Faith)’에서 2세 이전 영아를 ‘미분화된 신앙(Undifferentiated Faith)’ 즉, 신앙 발달의 선 단계(pre-stage)로 소개하면서 그동안 기독교 신앙발달의 단계에서 다소 소외되었던 영아와 어린 유아의 신앙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인생 초기부터, 더 나아가 태아 때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표상은 인지적 발달과 함께 성장하는데, Piaget의 인지발달 이론에 의하면 유아기인 제 2단계, ‘전조작기(The Period of Pre-Operational Thought: 2-7세)’는 표상적, 상징적 사고가 가능하게 하며 사고의 내면화 현상이 시작되는 시기로 보고 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미지 형성이 가능해지는 시기로 유아가 스스로 인지 할 수 있는 어떠한 신념이나, 믿음, 행위 등에 관한 개념적, 추상적 사고 발달이 시작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Fowler 또한 그의 이론에서 3-7세 유아를 신앙 발달의 첫

번째 단계인 ‘직관적-투사적 신앙(Intuitive-Projective Faith)’로 보았다. 이 단계는 본격적으로 신앙이 형성되는 단계로서 추후 한 개인의 신앙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단계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그는 신앙발달의 각 단계가 각각 별개의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전체이며, 각각의 단계는 계층적이고 연속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신앙발달의 선 단계인 ‘미분화된 신앙’에서 신앙의 첫 단계인 ‘직관적-투사적 신앙’으로 넘어가는 3-4세의 어린 유아는 신앙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는 그 과정에 있는 매우 핵심적인 연령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유아의 신앙적 개념은 그가 속한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받아 발달한다고 한다. 이것은 주로 성인과의 관계와 유아가 속한 신앙 공동체에서의 교육을 통해 습득된다고 알려져 있다(정대현 등, 2009: 371). 이는 전조작기 유아의 발달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시기의 유아들은 가까운 성인의 기분, 행동과 언어에 영향을 받게 된다. J. H. Westerhoff는 어린이의 신앙을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필수적인 ‘경험적 신앙(Experienced Faith)’이라고 명명 하였다. 또한 신앙발달 이론가인 Fowler는 앞서 이야기 한 바와 같이 유아기의 신앙을 직관적이며 투사적이라고 묘사하였다. 이는 유아의 신앙발달에 그가 속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으며 가정과 교회, 공동체, 그리고 일상적 환경에서 유아의 신앙생활을 관찰 하고, 그 모습을 현장감 있게 드러내는 것은 유아의 신앙발달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신학자 H. R. Niebuhr 또한 신앙발달에 이러한 환경적 요인의 영향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그는 신앙이 유아기에 자신을 양육해준 사람들과 맺는 최초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신앙의 성장은 이러한 가까운 사람들과의 신뢰와 성실, 혹은 불신이나 배신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Fowler 또한 ‘직관적-투사적 신앙’을 주로 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들의 신앙의 모범, 양태, 행동, 대화 등에 의해 강하고 영구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방적 단계로 보고 있다. 또한 영아기에 해당되는 ‘미분화된 신앙’ 단계의 경우 신뢰, 용기, 사랑, 소망과 같은 감정들이 하나의 감정 안으로 혼합되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보았다. 영아들은 이러한 감정들을 분화된 감정으로 느끼지 않고 ‘선한감정’ 대 ‘나쁜 감정’, ‘고통’ 대 ‘기쁨’ 등의 기본적인 감정으로 느끼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태를 K. Henley는 “신앙의 씨앗”의 단계라고 표현하였다(정갑순, 2004: 175). 이 시기 형성되는 씨앗은 이후 신앙 발달의 기초가 되어 싹을 틔우게 된다. 정갑순(2004: 175)은 이러한 “신앙의 씨앗”의 구성요소인 여러 기본적

인 감정들이 당시의 부모와의 관계에서 시작된다고 보았다.

이처럼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자녀의 하나님 개념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De Roos et al., 2001: 20, Dickie et al., 1997: 25-26; Hertel & Donahue, 1995: 196-197), 유아기의 신앙이나 종교성 발달에 관한 이론들은 한결 같이 부모의 존재와 관계의 질 그리고 부모의 본보기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한다(박신경, 2002: 283). 단적인 예로 부모의 양육태도가 체벌과, 고함 등의 폭력지향적인 양육태도일 때 유아들은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형성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대해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으나 반대로 부모가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등의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일 경우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ickie et al., 1997: 37-38). 이는 성장기에 형성 되는 하나님의 이미지에 부모의 양육태도가 투사되기 때문이다(Hertel & Donahue, 1995: 196-197). 특히 의존도가 높은 어린 유아에게 부모는 최초의 환경이자 훈육자임으로 부모는 신앙뿐만 아니라, 유아의 모든 발달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유아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는 환경적 요소는 부모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시간을 함께하는 어머니의 영향이 매우 지배적일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유아의 신앙생활에 관하여 논할 때 어머니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필수적인 일이다.

어린 유아들의 신앙을 연구로서 접근하고 자료를 얻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양적 도구를 갖고 어린 유아들의 생활과 신앙적 세계에 접근하는 것은 그 자체로 매우 어려운 일이며, 그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기 어렵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국내 유아의 신앙이나 신앙생활에 관한 질적 연구는 매우 미비하다. 유아의 신앙 또는 신앙생활은 앞서 말했듯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유아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맥락과 그 맥락들 간의 상호작용은 구체화된 양적 도구보다 질적인 접근으로 더 현실감 있게 전달 할 수 있다. 또한 유아가 경험하는 신앙생활을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고 가까이에서 관찰함으로써 그 경험의 의미를 유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질적 접근은 유아의 신앙생활 모습을 신앙의 주체인 유아의 관점에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문화기술 연구란 문화공유 집단(culture-sharing group)의 행동을 연구하고자 할 때 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문화적, 또는 사회적 집단이나 체계에 대한 기술과 해석을 의

미한다(Creswell, 2010: 105). 이 방법은 주로 참여연구를 기반으로 하며, 면밀한 관찰을 주 도구로 사용한다. 이는 연구 대상이 되는 현장에 연구자가 뛰어 들므로, 공감적으로 그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경험에 대한 인사이드(Insider)로서의 풍부한 기술과 설명 그리고 해석을 가능케 한다. 그러므로 문화기술지는 그 문화공유 집단이 경험하는 것을 해석하고 조직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문화적 의미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턴과 규칙을 발견하는데 매우 적합하다(Jacob, 1987: 18). 따라서 본 연구는 3-4세 유아들의 신앙생활을 문화기술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유아들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의미를 현실감 있게 드러내고 유아의 신앙 발달 및 신앙 형성의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주일 유아부 예배, 그리고 가정의 신앙생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 장소

(1) 유아부 예배실

유아부는 AG교회 교육개발원(유아·유치부, 초등부, 유년부, 중·고등부 담당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한 부서로서, 유아부 예배실은 AG교회 대예배실 지하에 위치하고 있다. 유아부 예배실은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유아들이 울동이나 놀이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다. 유아부 예배실은 예배에 필요한 스크린, 프로젝터, 피아노, 키보드 등이 구비되어 있으며 좌우 벽면 아래에는 수납장이 설치되어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문구류와 재료, 그리고 자유놀이 활동에 사용되는 장난감들이 정리되어 있다. 유아부실 맨 뒤쪽 벽면의 경우 아래는 신발장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쪽으로는 게시판이 설치되어 있어 유아부 예배와 각 반의 소개, 그 주의 후보 등을 게시하고 있다. 또한 유아부실은 간단한 싱크대와 컵, 접시, 일회용품 등을 보관하는 수납장이 구비되어 있어 교사들이 유아들의 간식준비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아부 예배는 1부(9:30-11:30)와 2부(11:30-13:00)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구자는 2부

예배에 참석하였다. 유아부는 교육개발원 총책임자인 M목사와, 해당 부서 담당자인 C 전도사가 예배의 전체적인 구성 및 커리큘럼을 담당하고 있다. 내부조직으로는 부장 교사 1명, 총무 2명, 교사 12명, 보조 교사 7명으로 총 22명의 교사들이 봉사하고 있으며, 부장 교사와 총무를 제외한 일반 교사와 보조 교사는 1부와 2부 예배에 따라 달랐다. 연구자가 관찰한 2부 예배의 경우 6명의 교사와 보조 교사 3명이 약 20여명의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었다.

(2) 자모실

자모실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배려된 장소이다. 자모실은 대예배실 바로 옆에 마련되어 있으며, 대예배실과는 다르게 의자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바닥에 좌식형 의자와 방석,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는 작은 탁자들이 구비되어 있다. 또한 벽화가 그려져 있고, 동화책이 구비되어 있는 등 영·유아와 아동 모두가 좋아할 만한 따뜻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다. 그리고 자모실 내에는 수유실이 구분되어 있어, 어머니가 영아를 편안히 수유할 수 있도록 배려되어있다. 또한 수유실 안에는 작은 스크린이, 수유실 밖에는 대형 TV가 설치되어 있어 부모들은 자녀를 돌봄과 동시에 TV 화면을 통해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

자모실은 주로 수요일예배(수요일, 오후 7:30-9:00시)와 금요일예배(금요일, 오후 10:00-12:00시), 주일예배 1부(7:00-08:30), 2부(9:30-11:00), 3부(11:30-13:00), 4부(14:00-15:30)에 사용되며, 주일예배 2, 3부의 경우 유아부 및 유치부 예배가 같은 시간에 진행되므로, 이 시간에는 1세 미만의 어린 영아들이 주로 사용하게 된다. 부모들이 평일 오전에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공부나 프로그램에 참석하는 경우 자녀를 맡기는 곳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 경우 자모실에 담당자가 1-3명 정도 있어 맡겨진 자녀를 돌본다. 연구자는 금요일예배에 참석하여 자모실 관찰을 진행하였다.

2. 연구 대상

연구 대상은 3명의 유아와 그 어머니였다. 유아들은 모두 A교회 유아부 2부 예배를 참석하였으며, 연령은 3세와 4세였다. 또한, 어머니들 모두 현재 AG교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모태신앙이거나, 아주 어린 나이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간이 매우 길다. 이들 중 두 어머니는 AG교회에 소속된 부목사님의 아내이며, 한 어머니는 2대에 걸쳐 AG교회에 참석하고 있는 가정의 어머니로서 현재 교회에서의 직책은 집사이며, 2부 예배 성가대 오케스트라에 봉사자로서 참여하고 있다. 연구대상자들의 기본사항은 아래의 <표1>에 요약하였다.

은비 어머니를 제외한 두 어머니들은 유아와 함께 교회에 방문하는 횟수가 주 3회 이상이었으며, 은비의 경우 현재 어머니와 함께 일요일에만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였다. 주로 어머니들은 예배 참석을 위해 유아와 함께 교회에 방문하였으며, 관찰기간 동안에는 시행되지 않았지만, 가을에 시작하는 평일 유아 프로그램인 ‘아기학교’ 참여를 위해 유아와 함께 교회에 방문한다고 말하였다.

연구 대상인 유아의 어머니들은 모두 연구자와 연구 시작 전부터 교회 내에서 친분이 있었으며, 대상 유아들은 신생아 때부터 현재까지 연구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유아들이다. 비록 신앙적인 주제에 한한 것이지만, 유아의 신앙생활, 유아와 부모와의 관계, 가정에서의 일상적인 생활 등을 깊이 인터뷰해야 하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아와 어머니가 어느 정도 연구자와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고, 유아와 어머니 모두가 교회에 정기적으로 참석 하고 있는 대상을 선별하게 되었다.

<표1> 연구대상 기본사항(2011년 10월 현재)

이름(가명)	성별	연령	어머니	교회활동 참여
유은비	여아	4세(42개월)	AG교회 집사, 3부 성가대 오케스트라 소속	유아부 예배, 아기학교
이주희	여아	4세(36개월)	AG교회 부목사 부인	유아부 예배, 아기학교, 수요일예배, 금요철야예배, 젊은이예배(청년부 예배)
김수연	여아	3세(30개월)	AG교회 부목사 부인	유아부 예배, 아기학교, 수요일예배, 금요철야예배

3. 연구 절차

질적연구에서는 내부자적 관점을 드러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보이지 않지만 연구의 가치를 결정지을 수 있는 가장 큰 변인은 바로 래포(rapport)이다. 실제 연구자는 대상 유아들과 꾸준히 접촉을 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정기적 접촉만으로는 유아와의 충분한 래포(rapport)를 형성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본격적인 관찰 전부터 자모실에 참석하여 대상 유아 및 어머니들과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유아부 여름성경학교의 보조 선생님이로 참여하여 대상 유아들과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각 가정에서 진행된 어머니 인터뷰 후 항상 30분 이상 대상 유아들과 놀이를 해주는 등 유아, 어머니 모두와 충분한 래포(rapport)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2011년 4월 22일 사전관찰을 시작으로 자료 수집을 시작하였다.

자료수집은 2부 유아부 예배 참여관찰로 시작하였다. 연구자는 4월부터 6월까지 대상 유아들이 모두 참석하는 유아부 2부 예배에 총 7회 동안 참석하였다. 그리고 대상 유아 및 어머니들과 함께 찬양과 율동, 말씀 등의 예배 순서에 함께 참여했으며, 동시에 유아부 예배의 형식과 내용, 대상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다. 표현 및 만들기 활동인 ‘예꿈 활동’의 경우 연구자가 활동에 참여하기 보다는 각 반에 흩어져 있는 대상 유아와 어머니를 돌아가면서 관찰하고 유아 또는 어머니와 그 날 예배에 대한 간단한 대화를 나누기도 하였다. 또한 유아부 예배 후 있는 자유 놀이 시간에는 한 주에 한 유아씩 돌아가며 적극적으로 놀이 활동에 참여하여 대상 유아들과의 래포(rapport)형성을 위해 노력하였다. 그 후 7월부터 9월까지 각 유아의 어머니에게 매주 가정관찰지를 나누어 주어 가정에서 유아의 자발적 신앙생활과 부모가 유아에게 행한 신앙 교육 등을 간단히 기록하게 하였다. 또한 그것을 기초로 총 4회 동안 각 가정을 방문하여 유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유아의 신앙생활 및 생활 패턴, 가정에서의 종교교육, 어머니의 신앙생활 및 생활 패턴 등에 대해서 35~60분간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8월부터 9월까지 총 6회기 동안 금요철야예배 중 자모실에서 이뤄지는 대상 유아들의 놀이 활동과 부모님들의 교류 등을 관찰하였다. 연구자는 자모실에 지속적으로 참석함으로써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얻고자 노력했다. 또한 대상 유아는 물론 고정적으로 자모실에 오는 아동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노력하였

고, 어머니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적극적으로 도움으로 어머니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8월과 9월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동시에 수집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그것에 대한 해석에 들어갔고, 2011년 10월에 보고서를 완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크게 유아부 예배 참여관찰, 어머니 인터뷰, 자모실 관찰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유아부 예배 참여관찰의 자료는 Pen&Paper, 간단한 면담, 주보와 같은 매체물 등을 통해 수집되었다. 두 번째로, 가정 관찰지를 기반으로 시행된 대상 유아의 어머니 인터뷰의 경우 녹음 후 전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모실 관찰은 금요일 야 예배가 시작되는 저녁 10시에 시작하여 자유 기도시간 전인 11시 30분까지의 모습을 노트북을 사용하여 당시 상황과 행동 등을 기록하는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수집된 자료는 Wolcott(1994)의 기술, 분석, 해석의 단계를 따라 각각의 상황과 인터뷰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에피소드 단위로 분류하였다. 그 후 유아와 어머니의 행동 및 대화 등에 나타난 패턴화된 규칙(patterned regularities)을 찾아 각 에피소드를 엑셀을 통하여 부호화 및 범주화 하였으며 공통 범주별로 정렬하여 상위의 주제를 가진 작은 세트로 구분하였다. 인터뷰의 경우, 각 회기가 진행됨에 따라 인터뷰 내용이 심화되었고, 단순하게 에피소드로 분류하여 중복적으로 관찰되는 패턴을 찾기 보다는 각 인터뷰의 흐름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자료의 가치를 충분히 드러낼 수 있겠다고 판단하여 전사된 자료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고 그 본질과 의미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면서 인터뷰 내용의 흐름과 반복된 표현을 중심으로 부호화하여 구분하였고, 어머니들의 인터뷰를 비교하여 모든 어머니들에게서 가장 공통되게 언급되었던 내용 혹은 상이한 부분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된 두 자료를 지속적으로 읽고 연결하여 본 결과 유아의 신앙생활은 어머니의 신앙생활 패턴에 의해 형성되는 자모실의 교체와, 유아부 예배를 통한 신앙교육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분석 결과는 대상 어머니들과의 추가 면담으로 확인 및 피드백을 받았으며, 이를 참고하여 글쓰기가 진행되었다.

III. 해석 및 글쓰기

이영주와 엄정애(2008: 94)는 그의 연구에서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에 대한 한 인간의 개념과 신앙의 성숙이라는 내면세계의 외현적 표현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신앙생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예배 참석과 기도(진명옥, 2003; Buchko & Witzig, 2003; Maselko & Kubzansky, 2006; McCullough, 2001; Oser, 1980), 성경읽기와 성경공부를 통한 성경알기(Buchko & Witzig, 2003; Maselko & Kubzansky, 2006), 찬송 및 가정 예배(진명옥, 2003; Maselko & Kubzansky, 2006), 교회공동체로서 교제하기(Maselko & Kubzansky, 2006; McCullough, 2001; Oser, 1980), 신앙적인 대화(진명옥, 2003; Buchko & Witzig, 2003) 등을 언급하였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라고 표현할 때 이는 크게 두 개념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예배, 기도, 묵상 등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말하며, 그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제, 성도간의 신앙적 대화를 포함한 ‘교회 공동체 생활’이다. 본 연구를 통해 관찰한 유아들 또한 이 두 측면을 모두 경험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아의 신앙생활은 성인의 신앙생활과는 달리 어머니와 언제나 함께하는 특성을 보였다.

1. 가교가 되는 어머니의 신앙생활

대상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을 분석해 본 결과, 어머니의 어떤 신앙적 신념이나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 등의 보이지 않는 내면적 신앙 보다는, 실제 목격하고 모델로 삼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머니의 신앙생활 습관, 표현된 말, 행동 등이 유아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더하여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유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모델이 될 뿐만 아니라, 유아가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다.

(1) 모델이 되는 어머니의 신앙생활

대상 어머니들은 일상적 생활에서 무의식적으로 신앙용어나 신앙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했는데, 유아들이 이러한 어휘 표현을 모방한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표현은 유아가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표현하기도 하였다. 유

아들은 어머니의 언어를 모방함으로써 기독교적 용어와 표현들을 습득하고 정확한 뜻은 알지 못하더라도 그 용어를 익숙하게 받아드리고 있었다. 이는 어떠한 집단의 언어를 배워 나가는 것과 유사한 것으로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의 상호작용을 자연스럽게 받아드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언어적 모방은 추후 유아가 교회의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드리고 학습 할 수 있도록 돕는 매개체가 된다고 할 수 있다.

요즘에 계속 내가 “은비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이야기 했더니 어제는 “엄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 나한테 표현을. 본인한테 “엄마, 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이렇게 역으로 표현을 요즘에(하기도 해)(유은비 어머니, 인터뷰 1회기, 7월 26일).

아빠가 아이에 대한 양육..양육목표? 그게 ‘배려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배려’ 이야기를 집에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수연이도 ‘배려’라는 단어는 알죠. ‘배려’가 뭔지는 모르지만 오빠가 “그래 내가 배려할게”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럼 수연이는 그걸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고 그래요(김수연 어머니, 인터뷰 2회기, 7월 28일).

어머니의 신앙적 행동은 특히 유아가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신앙적 행동이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으며, 유아는 그 맥락에서 어머니의 행동을 주목하고 모방하였다. 유아들은 그 것을 거부감 없이 내면화 하였으며, 추후 동일한 맥락의 상황을 접하였을 때 모방했던 행동을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수연이가 어제 돌잔치에 따라갔다 왔거든요? 근데 우리끼리 모여 있으면 식사기도 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근데 어제 그 모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긴 했지만 식사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걸 재가 봤겠죠? 그래서 내가 볼 땐 살짝 망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엄마 기도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해야지~ 엄마랑 같이 하자” 라고 했더니 하더라고요. 재도 분위기를 볼 줄 아나 봐요. 제 친구들도 뭐 기도하는 애들 아무도 없었고, 저하고 재하고. 그것도 조금 의외였어요. 당연히 하는 기도인데 분위기가 이상하니까...(김수연 어머니, 인터뷰 3회기, 7월 31일).

요즘에 하도 모기 물리고 이런 게 많아서 기도를 자주해. 뭐.. “주희 모기물린데 고쳐주세요” 이렇게. 그랬더니 자기가 혼자 간지럽거나 아프면, 그리고 엄마 애 낳아서 아프다니까 자기가 기도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이주희 어머니, 인터뷰 1회기, 8월 24일).

또한, 대상 유아의 어머니들은 모두 자신의 자녀에게 기독교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어떤 이상이나 바람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주로 자녀에게 하는 대화, 훈계, 지도 등의 양육방식 전반에 녹아들어가 있었다. 대상 유아의 어머니들은 각각 다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유아에게 강조하고 있었다. 이는 대상 유아의 어머니가 어릴 적 경험 했던 어려움이 반영되어 있었으며, 어머니들은 주로 자신의 자녀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혹은 자신의 삶에서 경험적으로 중요하다고 느낀 기독교적 가치관을 유아의 종교적 교육 전반에 적용하고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연의 어머니의 경우 인터뷰를 통해 자신이 삼남매 중 둘째째로 태어나서 겪었던 상처를 나누었다. 수연의 어머니는 이러한 삶의 경험을 통해 ‘배려’의 중요성을 느꼈고, ‘배려할 줄 아는 아이’를 양육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는 주로 대화와 훈계를 통해 자녀들에게 강조되고 있었다.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생각을 들 때가 많았어요. 상처를 제가 많이 받은 케이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때 어렸을 때 셋째한테 치여서.. 그러니까 제 동생을 엄마가 제가 3개월 때 가지셨어요.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난 재 때문에 피해자야. 이런 생각이.. 괜히 가슴형 인테다가 그런 것 까지 있었으니까 피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걸로 잡으시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아이들에게 그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고, 배려(김수연 어머니, 인터뷰 2회기, 7월 28일).

은비 어머니의 경우 자신에게 큰 의미가 되었던 삶의 경험과, 어머니의 양육방식에 대한 반감을 통하여 자발적인 신앙과 그 신앙의 힘을 중요시 하고 있었다. 따라서 은비에게 주일 예배 참석과 식기도 외에 다른 신앙적 행위를 가정에서 강요하지 않았고, 은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음.. 일부러 나는 내가 하도 할머니한테 지도를 많이 받아가지고, 나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싫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개념형성이 되는 게 좋지, 막 주입식으로, 신앙이라는 게 실생활에서 이뤄져야지. (중략). 일부러 식기도 라든지, 이런 걸 막 강압적으로 인위적으로 시키는 편은 아니야. 찬양을 계속 틀어준다던가.. 뭐 이런 거는 해주면 좋겠지만 일부러 하는 편은 아니야(유은비 어머니, 인터뷰 1회기, 7월 26일).

나도 마음이 강했으면 좋겠구, 쓰러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런 일이 있을 때 마다 일어나서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설교말씀 들을 때 OOO목사님 계실 때 그 말이 되게 마음에 많

이 와 닿았어. 신앙이지.. 신앙이지만 나는 그것을 마음의 힘으로 표현을 한 거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좀 강한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은비가. 특히 마음이. 그거는 내가 절대적으로 너무 필요한 부분이니까(유은비 어머니, 인터뷰 4회기, 8월 20일).

주희 어머니의 경우,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따라서 주희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해 주려고 노력하였으며, 양육태도 또한 민주적인 모습을 보였다.

내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그냥... 그냥 거든.. 근데 ..정말 어릴 때부터 그런 인격적인 만남이 있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물론 그런 때가 있겠지만 정말 달라. 나는 그게 빨리, 빨리 오게 해달라고, 아이가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게 해달라고 나는 그 기도를 많이 했어. (중략).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는 편이야. 하나님이 보이진 않지만,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럴 때 주희 마음속에 계시다.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하나님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해 주는 거지.. 그래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도 속상해 하신다. 주희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 기도하기 싫다고 할 때 “주희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실 텐데?” 이렇게. “기도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 안하고, “목소리 듣고 싶어 하시는데?”. 교회 가기 싫다고 할 때 가끔 “하나님이 주희 보고 싶어 하시는데?” 이렇게 많이 해(이 주희 어머니, 인터뷰 1회기, 8월 24일).

이처럼 눈에 보이는 직접적인 어머니의 신앙 모습은 유아에게 신앙적 언어 및 행동의 모델이 되고 있었으며, 신앙적 대화나 훈계 등의 양육태도를 통해서 어머니가 중요시 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2) 자모실에서의 관계 형성과 놀이

어머니들의 신앙생활에 대해 인터뷰한 결과, 어머니가 교회에 가는 횟수가 잦을수록 어머니의 인간관계가 교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고 따라서 자녀의 사회적 관계도 교회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주일의 유아부 예배를 제외하고, 부모가 수요일예배나 금요일아침예배, 속회나 기타 교육 등을 주중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 유아들은 자모실에서 자유롭게 놀며 교회와 교회 구성원들과의 친숙함을 형성하고 있었다. 유아들은 그 시간을 기대하고 즐거워하였으며, 교회라는 장소에 대한 인식, 교회 사람들, 교회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유아들은 자모실에서 또래와의 놀이, 다양한 연령과의 사회적 관계 등을 형성하면서 크고 작은 갈등들을 겪어 나갔다. 이러한 다양한 갈등과 화해는 자기중심적 특성을 갖고 있는 유아들에게 지속적으로 타인을 이해하고 고려하도록 도전하였다. 이러한 도전은 유아가 가역적(reversible)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이끌고 있었다. 이러한 가역적 사고는 추후 유아가 하나님을 타인으로 인식하여 그와 관련된 인과관계, 상호성, 대화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기초적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유아들은 이러한 관계 형성과 크고 작은 갈등을 통해 공동체적 행동과 태도를 이해하고 경험하며, 그로 인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인 ‘교회 공동체적 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다.

① 자모실에서 만나는 또래들

금요일 예배에 참석하는 부모들은 대부분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부모들이었으며, 따라서 자모실에 오는 유아들도 대체적으로 고정적이었다. 따라서 대상 유아들은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신의 또래 및 언니 오빠들의 이름과 얼굴 그리고 그들의 부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으며, 이들과 친밀한 관계였다.

주희가 엄마와 자모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주희는 신발을 벗기도 전에 물었다. “엄마, 수연이 왔어?”(자모실, 관찰 6회기, 9월 30일).

재형의 엄마인 최 사모님이 스크린을 통해 나오는 가사를 보며 찬양을 하고 계셨는데, 수연이 그 뒤로 가서 사모님의 등을 안았다. 사모님은 뒤 돌아보며 수연이의 등을 토닥토닥 두드리 주며 웃으며 인사를 했다(자모실, 관찰 1회기, 8월 12일).

최 사모님이 오자 수연이 반갑게 뛰어가서 안았다. 그러자 수연의 어머니가 “최 사모님한테 요즘 유독 그러더라?”라고 하자 주희의 어머니가 “아니야 꾸준히 최 사모님한테는 그랬지~”라고 답하였다(자모실, 관찰 5회기, 9월 23일).

대상 유아 중 자모실에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유아는 주희와 수연이었다. 은비의 경우 어머니가 주일 예배만 참석하심으로 자모실에 참석하지 않았다. 주희와 수연의 경우 같은 어린이집을 다닐 뿐 아니라, 수요일, 금요일에도 자모실에서 만나고 주일예배도 함께 참석하여 서로 매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반면 은비의 경우, 자모실에 참석하는 다른 대상 유아들에 비해 또래 관계의 빈도가 매우 적었다. 이는 자모실이 단지 어머니들과 아이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 아니라, 유아에게

는 정기적인 놀이장소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장으로써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또래라는 게.. 너무 어려(은비가).. 아직은 너무 애기라고 생각이 들고 엄마 없이 좀 돌아다닐 만한 ..아직도 그냥 .. 또래 관계는 아직 조금 이르지 싶어.. 남자에 개 내 친구 아들 OO하고, 음.. 친하게 지내는 애는 개 하나인거 같애. 그리고 주일날 한번 보는 친구들. 우리 신랑 친구 목사님이거든? 그 분 아이.. 일 년에 한번 보는 친구.. 하하. 그 정도?(유은비 어머니, 인터뷰 4회기, 8월 20일).

어린이집 가고, 주일 예배 때 만나고, 수요일이랑 금요일은 자모실에서, 거의 일주일 내내 만나 애네는. 토요일 빼고 이거는 거의 매일 만난다고 봐야 돼 하하. 개네는 미운 정 고운 정이야. 애증의 관계. 하하(이주희 어머니, 인터뷰 1회기, 8월 24일).

② 자모실에서 확장된 작은 공동체

자모실에 참석하는 유아와 부모는 매번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그 중에 4-6쌍은 예배에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어머니와 유아였다. 고정적으로 참석하는 어머니와 유아들은 앞서 말했듯이 서로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는 유아들 뿐 만 아니라 참석하는 어머니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들은 스스로 ‘자모실 동기’라고 말하며 교회 예배나 행사 외에도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있었다. 이는 자모실에서 형성된 어머니들 간의 유대관계가 교회 밖에서도 연장되고 있으며, 유아들 또한 자모실에서 만났던 친구들을 교회 밖에서도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자모실도 동기라 그래서 엄마들끼리 친하게 지내요. 오시는 멤버들이 항상 거의 비슷하죠. 예전에는 이것보다 많았는데, 요즘 이런저런 이유로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자모실 엄마들이랑 사적으로 만나고 그래요. 지은이 이야기 들었던 것도 거기서 들은 거고. 지난주에도 재원이랑 지은이랑 찬우, 송이랑 같이 물놀이 갔거든요. 따로 어디 같이 가고 그래요(김수연 어머니, 인터뷰 4회기, 8월 6일).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을 만나지. 유아부 이런 데는 연령이 다양하진 않잖아. 애네는 사실 예배하러 가는 것은 아니지. 그리고 나도 사모님들 뿐 만 아니라 여러 엄마들을 만나지. 그러면서 이야기도 하고 애기도 듣고 소식도 듣고 그런 기능이 있는 것 같아(이주희 어머니, 인터뷰 2회기, 8월 27일).

유아들의 경우 어머니의 생활패턴에 따라서 일상생활을 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어머

니들의 유대관계는 유아의 또래관계 형성과 유지에 매우 큰 영향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교회참여가 교회 밖으로도 이어진다는 것은 사회적 교류가 부족한 현대 유아에게 교회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아들은 이와 같은 잦은 만남을 통해 자신의 또래 뿐 만 아니라 함께 속해 있는 성인들과도 자모실 안과 밖에서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어떠한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만들었으며, 그 안에서 유아들은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다.

주희의 깔때기가 쏟아져 바닥에 뽕튀기를 다 흘렸는데, 이것을 수연이 옆에서 주어서 먹었다. 그러자 주희가 울며 내 것인데 수연이 먹었다고 말하면서 엄마에게 서럽게 울며 달려갔다. 주희의 갓난쟁이 동생인 주현을 안고 있던 엄마는 주희를 안아 줄 수 없는 상태였지만 주희는 계속 엄마에게 안기기를 원했다. 그 때 옆에 있던 수연의 어머니가 주희를 들어 자신의 품에 안고 달래주었다. 주희는 엄마에게 돌아가려고 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수연 모의 품에 안겨서 조금 울다가 진정하였다(자모실, 관찰 5회기, 9월 23일).

주희가 물을 먹고 싶다고 물 마시러 가자고 하자, 주희의 어머니는 주희의 손을 잡고 자모실 밖으로 나가면서 수연이 어머니에게 주현을 가르치며 “주현이 줌” 하고 영아인 주현을 잠시 보살펴 달라고 하고 주희를 데리고 자모실 밖에 있는 정수기를 이용하기 위해 나갔다. 이번엔 수연이 와서 엄마에게 목이 마르다고 조르자, 수연의 어머니는 오빠인 혁민을 불러 수연과 함께 물을 마시러 갔다 오라며 둘의 손을 잡게 하고 물 마시러 나가게 했다. 수연의 모와 주희의 모 모두 주현에게 신경을 쓰지 못한 가운데, 주변에 앉아 있던 다른 어머니들이 자연스럽게 주현을 조심스레 바라보았고, 주현이 웅얼이를 하자 바로 반응을 해주고 눈을 마주쳐 주는 등 엄마가 인 주현을 보살폈다(자모실, 관찰 5회기, 9월 23일).

이처럼 유아들은 엄마가 잠시 없는 상황에서 소속감을 형성한 다른 성인을 통해서도 안정감을 찾았으며, 또한 대상 유아의 어머니들도 자신이 없는 경우에 그들에게 어린 영아를 편안하게 맡길 정도로 서로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렇게 형성된 보이지 않는 울타리 안에서는 다양한 나눔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서로의 소식이나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간식이나 옷, 장난감 등을 대물림하거나 공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자모실에 간식을 갖고 오는 어머니들은 항상 넉넉하게 챙겨 모두와 함께 나눠 먹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눔 행동을 실천하였다.

아이들이 우루루 수유실에서 나왔는데, 이 때 송이와 수연이 송이의 어머니에게 갔다. 송이는 어머니의 무릎에 앉았고 수연은 송이의 어머니 앞에 섰다. 송이의 어머니는 “수연이 예쁜 옷 입었네, 아주 잘 어울린다.” 라고 칭찬했으며 “이제 딱! 잘 맞네.” 하고 수연의 옷을 살폈다. 이 때 옆에 있던 송이가 “엄마 나 이거 4살 때 입었던 거.”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송이의 어머니가 “그래 송이가 입던 거 맞아.” 라고 응답해 주었다(자모실, 관찰 4회기, 9월 2일).

아이들은 자모실 중앙에 있는 테이블에 모여 수연의 어머니가 갖고 온 빵튀기와 강정을 다 같이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하였다. 뒤늦게 주희가 오자 수연의 어머니는 수연에게 “저기 주희 언니도 갖다 줘” 하면서 함께 나눠 먹을 것을 권유했다(자모실, 관찰 5회기, 9월 23일).

몇몇 아이들이 빵튀기를 더 요구하자 수연의 어머니는 종이를 깔때기를 만들어 거기에 빵튀기를 넣어서 나눠 주었다. 아이들은 깔때기가 마음에 들었는지 모두 수연의 어머니에게 가서 빵튀기를 깔때기에 넣어서 달라고 요구하였고, 사모님은 종이를 구해 원하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었다. 엄마가 깔때기 만드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수연이 와서 “엄마! 주희 언니도.” 하면서 주희의 몫을 챙겼다. 이에 수연의 모는 “응. 알았어.”라고 미소를 지으며 말하며 수연의 영당을 토닥거렸다(자모실, 관찰 5회기, 9월 23일).

아프리카 속담에 이러한 속담이 있다고 한다. “It takes a village to raise a child.” 이처럼 연결된 자모실의 인연은 자모실 안과 밖에서 유아와 아동들에게 작은 ‘village’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 어머니들은 이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형성하고 그 안에서 작은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나갔다. 유아와 아동들은 이러한 울타리 안에서 안정감을 얻고, 다양한 연령과의 교류, 그리고 나눔의 태도에 대해 자연스럽게 배우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과 태도는 신앙의 한 축인 ‘교회 공동체 생활’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 성인들이 속회나 셀(cell) 모임 등의 교회 소모임에서 경험하는 성도와의 교류, 나눔, 안정감 등을 유아들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엄마와 함께하는 유아부 예배와 가정으로 연계되는 신앙생활

유아의 신앙 형성에 또 한 가지 축이 되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에 해당되는 주일 유아부 예배라고 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유아부 예배는 유치부나 초등부와는 달리 부모와 함께 드리는 독특한 예배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신앙 교육의 측면을 교회에 위임한 현대 가정에서 이러한 형태의 예배는 유아의 신앙형성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1) 유아부 예배의 특성

유아부 예배에는 매주 1세~4세의 영·유아 40여명(1, 2부 포함)과 그 부모들이 참석하고 있었다. 이는 연령을 고려했을 때 영아부와 유아부가 혼합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모는 주로 어머니였다.

유아부 예배의 구성은 크게 ‘예배’와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표2>. ‘예배’의 경우 일반적인 기도, 설교와 같은 예배 의식을 포함하며, ‘활동’의 경우 예배의 내용과 관련된 표현 및 만들기 활동과 간식 등을 포함하고 있다.

〈표2〉 유아부 예배의 구성

구분	구성 순서
예배	찬양, 기도, 성구암송, 말씀, 헌금봉헌, 광고, 축도
활동	예꿈활동(만들기 활동), 간식, 자유선택활동(자유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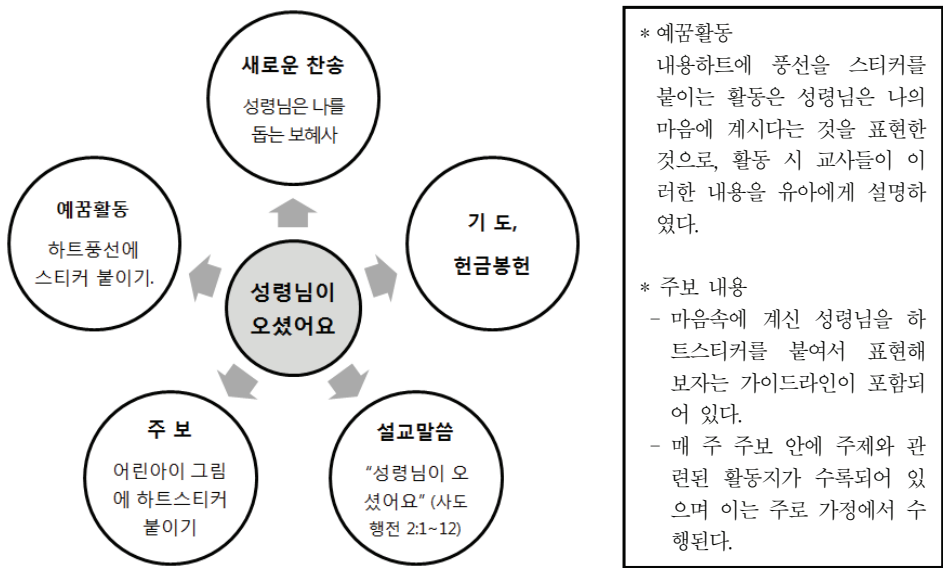
형식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예배’의 경우 일반적인 개신교의 예배형식을 띄고 있었고 성인 예배와 구성적인 면에서 크게 다른 것이 없었다. 따라서 유아부 예배의 가장 큰 형식적 특성은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 그리고 ‘활동’에서 핵심이 되는 순서는 바로 ‘예꿈 활동’이다. ‘예꿈 활동’은 유아들이 간단한 만들기나 미술과 같은 표현 활동을 통해 예배에서 다룬 내용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돕는 순서이다. ‘예꿈 활동’은 함께 참석한 부모와 조별로 이루어지며, 각 조 당 한명의 담당교사가 있다. 각 조는 유아의 연령별로 나누어져 있으며, 관찰했던 2부에는 총 5개의 조가 있었다.

유아부 예배의 내용은 부서 담당자인 C전도사가 기획한다. 이 기획은 매 주 토요일 오전 교육개발원 전체 미팅에서 교육개발원 총책임자인 M목사와 논의 하에 결정되며, 결정된 내용을 기반으로 기획된 커리큘럼은 토요일 오후 유아부 교사 회의를 통해 교사들에게 통지된다. 유아부 예배의 내용은 담당자 C전도사의 계획 아래 예배의 모든 구성요소가 하나의 주제로 엮여져 있다[그림2]. 이는 유아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당 종교를 개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모두 유아들의 연령에 적합하게 계획되어 있었다.

이러한 유아부 예배의 형식적 특성과 내용적 특징은 교육개발원에 함께 소속되어

있는 유치부, 초등부의 특성과 매우 유사했다. 하지만, 다른 교육개발원 소속의 부서와는 다르게 모든 예배의 순서는 부모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간혹 부모가 동 시간대에 교회의 봉사를 하거나, 다소 독립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4세 유아인 경우 부모가 함께 참여하지 않고 보조 교사나 담당교사가 예배와 활동 시간에 1:1로 유아를 돌보고 있었다. 유아부 예배에 있어 부모들은 참여자의 입장이었으며 유아부 예배의 진행이나 내용구성 등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상 유아들의 경우, 주회와 수련은 항상 어머니와 함께 유아부 예배에 참여하였으며 은비의 경우 어머니가 유아부 예배와 동 시간에 있는 성인 예배의 오케스트라에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선생님이나 할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렸다.



[그림 2] 유아부 예배 주제 통합 망

(2) 엄마와 함께하는 유아부 예배

대상 유아들은 어머니나 할머니와 함께 유아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었다. 유아들은 주로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예배를 드렸으며, 어머니와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은비의 경우 할머니나 담당 선생님의 무릎에 앉아 예배를 드렸다. 유아들은 이처럼 보호자

의 품에 안겨 있거나 옆에 앉아 있으면서 예배 순서에 잘 참여하도록 지지 받았으며, 유아들은 어머니(은비의 경우 할머니나 담당 선생님)로부터 정서적 안정감을 얻고 있었다. 이러한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은 유아가 예배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배의 맥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었다.

성구암송시간엔 3세 유아, 4세 유아 별로 앞에 나와 선생님을 따라서 울동과 함께 그날의 성구를 따라하는 시간을 가졌다. 3세 유아들이 확실히 성구를 따라하는 것을 힘들어 했다. 관심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다 따라하진 못하고 부분적으로 몇몇 아이들만 따라하였다. 수연의 경우 꽤 열심히 따라했으나 전체를 다 따라하지는 못했다. 성구암송이 끝난 후 부끄러운 듯 수연을 포함한 아이들이 자신의 부모나 자신의 담임선생님께 달려갔다. 4세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성구 전체를 선생님을 따라 할 수 있었으며, 주희와 은비도 매우 열심히, 잘 따라하였다. 4세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성구 암송이 끝난 후 부끄러운 듯 웃으며 엄마나 담임선생님께 달려가 안겼다(유아부 예배, 관찰 3회기, 5월 01일).

교사가 “누가 선생님이랑 같이 나와서 해 볼까?” 라고 하자 수연의 모가 수연의 등을 넉지시 밀며 나가서 울동할 것을 권면하는 신호를 보냈다. 수연이 제일 먼저 나갔고 은비와 주희 모두 참여했다. 수연은 울동을 전체적으로 따라 하기 힘든 듯 했으나 항상 엄마를 주시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은비는 앞의 담임교사를 보면서 잘 따라했으며, 주희는 부분 부분 친구들의 참조해 가며 울동을 하였다(유아부 예배, 관찰 5회기, 5월 22일).

1분 정도 되는 기도시간, 10여분 되는 설교시간은 때론 유아들이 집중하기에 긴 시간이 되기도 하였다. 또한, 옆 친구와의 장난이 재밌어 예배에 집중할 수 없을 때도 있었다. 이러한 행동이 과도한 경우 유아들은 예배 의식에 필요한 태도, 절제해야 할 부분들을 보호자로부터 지도받고 있었다. 이러한 지도는 유아가 예배에 좀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 듣기 등 예배의 각 순서에 기대되는 태도를 가르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도를 어머니들이 아주 일관되게 하는 것은 아니었으며, 유아의 행동이나 어머니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말씀시간] 수연이 뒤에 앉아있던 연구자에게 장난스러운 웃음을 보냈으며 연구자도 이에 응해 미소를 지었다. 수연은 연구자에게 와서 연구자가 계속 무엇을 적는 것을 보고 본인도 하겠다며 연구자의 펜을 가져갔다. 펜을 갖고 연구자의 종이에 낙서를 했다. 이 장면을 본 주희가 “나도, 나도 색칠 할래” 하며 연구자에게 다가왔다. 이에 주희 모가 “안돼.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야. 수연이는 동생이라 그래” 하고 제지 했다. 주희는 그래도 하고 싶다는 듯 “호응~” 하

면서 엄마를 졸랐으나 주희의 모는 고개를 저었다. 이것을 들은 수연의 모가 “서현아 이리와. 말씀 들어.”하고 서현을 데리고 갔다(유아부 예배, 관찰 5회기, 5월 22일).

은비는 경하와 함께 선생님 무릎에 앉아서 내용을 듣기도 하고 경하와 장난을 함. 경하와 계속 장난을 치자 선생님이 화면을 보라고 조용히 화면을 “봐봐” 하면서 손가락으로 가르치심(유아부 예배, 관찰 7회기, 6월 05일).

유아부 예배의 특별활동 부분인 예꿈 활동에서 나타난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은 각 유아 마다 매우 달랐다. 이는 각 유아의 기질과 어머니의 기본적인 양육태도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주희의 경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성격으로 민주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맞물려 예꿈 활동에서도 어머니에게 의존된 활동 모습을 보였다. 반면 규제 받는 것을 싫어하고 성격이 비교적 털털한 수연과, 독립적이고 자신의 주관이 뚜렷한 은비의 경우 어머니의 자유로운 양육태도와 할머니의 소극적인 참여가 맞물려 보호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예꿈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모든 보호자들은 공통적으로 당일의 예꿈 활동의 목적과 설교말씀과의 연관성을 따로 설명하거나 교육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이는 기본적인 양육태도와 상관없이 예배에 있어서 어머니는 교육자의 역할이 아닌 조력자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주희는 엄마와 함께 만들기를 하였다. 주희의 경우 엄마가 찰흙을 떼어서 일일이 주고, 스티커도 엄마의 손을 빌려 붙이는 등 엄마의 참여도가 매우 높았다. 수연의 경우 엄마가 스티커를 붙일 수 있도록 떼어주는 하나 스스로 붙이게 하는 등 조금은 더 독립적인 모습을 보였다. 은비의 경우 거의 독립적으로 만들기를 다 했으며 할머니와 친구 그리고 선생님과 대화만 하되 도움을 받지는 않았다(유아부 예배, 관찰 4회기, 5월 08일).

계란에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은 부모와 함께 진행되었으나, 따로 부모가 아이에게 그 활동이 함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더 교육시키는 장면은 관찰되지 않았다. 아마도 바로 전에 설교 시간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 같다. 예꿈 활동에서 주희는 엄마에게 안겨서 주로 같이 활동을 했다. 하지만 수연의 경우 엄마 옆에 앉아서 활동을 했으며, 자유놀이 활동에서도 그냥 자유롭게 두고 가셨다(유아부 예배, 관찰 2회기, 4월 24일).

(3) 가정으로 연계되는 교회의 신앙교육

유아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대상 어머니들은 유아가 현재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이나 주제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알게 됨으로써, 그것을 양육행동에 적용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주보활동’이나 ‘요절 외우기’ 등의 가정 연계 활동에도 좀 더 관심을 갖고 있었다.

집에서 하는 종교활동은 음.....주보? 주보활동. 저희 집은 근데 주보활동 하고 갖고 놀다가 찢어지고 해서 상은 못 받아요. 하하. 모아서 내면, 많이 모으고 모으려고 노력한 사람들은 상을 주는데, 우리는 상은 못 받는 것 같아요. 하하(김수연 어머니, 인터뷰 1회기, 7월 16일).

안했어, 주보활동. 예배를 같이 안 드려서 내가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그냥 잊어버리고 말게 되고 그거를 붙들고 앉아서 그렇게 하진 않았어. 아... 해야지 그러고 잊어버리고, 아 해야지. 이것도 있었지 참! 이라고 나중에 보니까 가방에 있더라고.. 그래서 난 잘 안하게 되더라(유은비 어머니, 인터뷰 1회기, 7월 26일).

어머니들이 인터뷰에서 모두 하나 같이 추구했던 것은 자녀의 ‘자연스러운’ 신앙 발달이었다. 이들은 모두 강요하거나 억지로 교육시키는 신앙교육에 반대하였으며 자신의 가정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교회에서 배우는 신앙 교육 외에 가정에서 특별히 신앙 교육을 시키는 시간을 갖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최 사모님이 제일교회 애들이랑 놀게 됐는데, 초1이나 초2인데 큐티 훈련이 너무 잘 되어있었는데요. 담임목사님 사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저도 좀 .. 자연스럽게 되길 원하지 뭔가를 막 시키고 그런 성격이 아니어서, 목사님도 그렇고(김수연 어머니, 인터뷰 1회기, 7월 16일).

뭐 특별히 어떤 주제를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하다보면.. 뭐..아빠가 유아부에서 있었던 일 물어보거나 그러면서 하고, 일상적인 이야기 하면서.. 신앙적인 이야기를 물어 볼 때도 있고, 나랑 비슷해. 말하는 게 목사님은.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 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거지(이주희 어머니, 인터뷰 1회기, 8월 24일).

교회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근데 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이제 하나씩 보조해 주는 역할정도만 해도..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아직은... 일부러 인위적으로 지도하려고 하지는 않으니까(유은비 어머니, 인터뷰 1회기, 7월 26일).

이는 현대사회에서 가정이 교육의 기능을 기관에 위임하였듯, 과거 기독교 가정의 큰 기능이었던 자녀의 신앙 교육이 교회로 위임되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정 내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배운 내용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

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 해 주는가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유아에게 있어 교회와 가정의 연결고리인 어머니가 유아와 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주보나 요절 외우기 활동 등의 교회의 연계시스템에 더 관심을 갖고 가정에서 이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의 신앙 교육이 가정으로 연계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4) 유아와 소통하는 신앙생활

대상 유아들은 모두 일요일에는 유아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유아부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와 함께 하는 예배라는 점이다. 은비를 제외한 두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유아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며(은비의 경우 어머니가 일요일에 오케스트라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할머니와 함께 참석하거나 혼자 예배를 드린다.) 유아부 예배에 함께 참석하는 어머니들은 아직 언어가 충분히 발달하지 못한 어린 유아들의 신앙적인 대화나 질문, 찬양 등을 잘 이해하고 울동을 함께 해 주는 등 유아의 종교적 표현에 잘 반응 해 주고 있었다. 이를 통해 어머니들은 현재 자녀가 교회교육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어떠한 신앙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의 신앙 발달과정을 상세히 알고 그것을 지원함으로써 자녀의 신앙적인 발달과 함께하고 있었다.

엄마랑 같이 예배드리면 안정감이 있으니까 훨씬 집중을 하고, 그리고 엄마도 (유아가) 뭘 질문하는지 정확히 알지. 엄마가 거기 안 있으면 무슨 이야기하는지 모르지, 나도 한동안 주현이 낡더라고 같이 예배 안 드렸을 때 애가 뭐라고 하는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대화가 더 풍성해지긴 하지. 나도 생각났을 때 이야기하고, 생활이랑 연결된 게 있으면 말하고, 난 같이 있는 게 더 좋긴 한 것 같애. 유아부 예배가 엄마 아빠를 때어 놓는 도구로도 사용되긴 하는데, 애들이 엄마랑 하는 건 진짜 기억을 잘해(이주희 어머니, 인터뷰 2회기, 8월 27일).

‘예수님 따라 쿵쿵쿵쿵’,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구... 음.. 잘 때 엄마한테 불러주는 거는 ‘날마다 너의 삶에’, 그거 제가 저번에 이야기 했었던 거. 음..‘씩트네!’ 최고 좋아하고. 요런 레파토리를 그냥 거의 저번에 봤듯이 그냥 책보면서 하고, 놀면서 하고, 그리고 그거를 울동을 엄마가 같이 해주면 애가 흥분해요. 너무 좋아해요.. 막 팔팔팔 뛰면서(김수연 어머니, 인터뷰 2회기, 7월 28일)

또한 어머니들의 경우, 자녀와의 신앙적 소통을 통해서 자신이 ‘은혜 받았다’라고 언급한 경우가 많았다. 아이의 신앙적인 질문이나 신앙적인 표현을 통해 어머니들 또한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얻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신앙적 대화가 단지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소통’임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소통을 통해 유아들만 신앙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부모의 신앙도 발달해 나가고 성숙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받기도 하지. 아주 조그맣게 다쳐도 기도를 해. 모기를 물려도 기도를 해(웃음), 근데 내가 기도하자고 한 게 아니고 스스로 이야기 할 때 나도 깜짝 깜짝 놀라. 작은 것에도 기도를 하는구나 이런 거. 하나님 보고 싶다고 할 때는 나는 생활에 찌들다 보니까 물론 사모하는 마음이 있긴 하지만, 그렇게 순수하게 이야기하진 않잖아(이주희 어머니, 인터뷰 3회기, 9월 3일).

내가 뭐 무슨 실수를 해서 뭐를 걱정을 하니까.. “걱정 하지마. 하나님이 도와 주실꺼야” 뭐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거지 은비가. 하하. 조금 당황되기도 하고 “아~ 진짜 기도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고 그랬지(유은비 어머니, 인터뷰 1회기, 7월 26일).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문화기술적 접근을 통하여 기독교 유아와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가까이 관찰함으로써 현대 기독교 유아들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모습과 의미를 드러내고 유아의 신앙 발달 및 신앙 형성의 주요 환경인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자모실 참석, 주일 유아부 예배의 역할과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심층 면접 및 참여관찰 등을 통해 얻게 된 본 연구의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유아의 신앙생활을 가능케 하는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유아들은 어머니의 신앙적 표현과 행위를 모델로 삼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있었고, 가정에서 주로 강조되는 기독교적 가치관들은 각 어머니의 경험에 따라 상이했으며 이는 어머니의 양육태도를 통해 전달되고 있었다. 또한 어머니의 주중 교회 참석은 유아의 자모실 참여로 이어져 교회에 대한 익숙함 뿐 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린 나이부터 경험할 수 있는 문화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도왔다. 특히 이러한 공동체 생활을 통해 유아는 다양한 연령의 또래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정기적인 놀이 활동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자모실에서 맺어진 인연은 자모실 밖으로도 이어져 그들만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만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구체적인 신앙행동과 가정의 신앙적 환경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구들의 결과(이영주·엄정애, 2008; 정희영, 1996; Goldman, 1964)를 경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는 유아가 부모의 기독교적 어휘 사용이나 기도하는 모습, 교회에 가는 모습 등을 목격함으로써 좀 더 현실에 맞닿은 ‘개인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배우고 그것을 실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통해 유아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한 축인 ‘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린나이부터 경험할 수 있었고, 기독교적 공동체라는 문화적 장을 자모실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어머니의 가교적 역할을 통해 유아는 신앙생활 뿐 만 아니라 교회 중심의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었다. 이는 자모실이 단지 예배에 방해 되지 않도록 유아들과 그 어머니들을 구별해 놓는 공간이 아니라 과거 놀이터나 골목, 동네나 마을이 갖고 있었던 지역 공동체적 경험과 배움, 그리고 또래와의 놀이 공간을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교회 참석이 단지 유아의 신앙생활 뿐 만 아니라, 유아의 심리 사회적 발달에도 유용한 환경적 맥락을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시사점은 먼저 가정의 신앙교육 기능을 교회에 위임한 현대 가정의 현실에서 어머니 자신의 실제적 신앙생활 자체가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바라는 ‘자연스러운 신앙발달’에 중요한 바탕이 되고 있음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교회에서 시행되는 부모교육의 내용에 어머니 자신의 신앙생활이 유아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갖는지 그들의 삶을 반영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교회의 자모실의 경우 유아 및 아동 중심으로 형성된 작은 공동체로서, 매우 특수하고 유용한 장이다. 하지만, 현재 자모실에 관한 국내 연구는 전무하며, 교회 내에서조차 자모실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기존 자모실에 대한 개념과 평가를 새롭게 바꾸어 볼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이러한 자모실의 여러 장점과 그 영향력에 대해 많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유아·유치부, 자모실, 가정의 연계를 강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예배와 프로그램 등을 함께 참여하면서 형성되는 교회 내의 작은 학부모 집단들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교회 내의 작은 문화들을 이해하고 구조적으로 끌어내어 이들의 요구와 고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유아·유치부, 자모실, 가정의 연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유아의 신앙생활의 또 다른 한 가지의 큰 축은 바로 주일 유아부 예배이다. AG교회 유아부 예배의 가장 큰 특징은 부모와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이었다. 유아들은 매 주일 유아부에서 부모와 함께 찬양, 설교, 예꿈 활동에 함께 한다. 함께하는 예배에서 유아는 어머니 또는 보호자로부터 정서적 지지와 안정감을 얻고 있었으며, 이는 유아의 적극적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었다. 또한 유아들은 어머니나 보호자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예배의식에서 요구되는 태도와 행동을 지도받고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직접적으로 유아에게 그 날 배운 신앙적 내용에 대해서 교육하거나 설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부모의 역할은 교사와 같이 예배를 구성하고, 기획하고, 가르치는 역할이 아니라 유아가 예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동일한 예배자로서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었다. 연구 대상 어머니들은 유아의 신앙발달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다. 따라서 과거 자신의 어머니들처럼 신앙적 행위나 생각을 지나치게 강요하거나 따로 신앙적 교육을 하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보다는 한 발자국 물러나 유아가 신앙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기초적인 원칙을 세워주고, 본을 보이며,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지원자 및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다.

정혜숙(2007: 46)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와 아이를 모두 교육 대상으로 하는 ‘영아-부모병행 유형’은 전국 197개의 교회학교 중 5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미라(2011: 46-47)의 연구에서 또한 전국 138개의 교회학교 중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영아부가 86.2%, 유아부의 경우 27.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의 많은 영·유아부에서 대상 교회와 유사한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를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함께하는 예배는 매우 독특한 형태이다. 이는 부모가 예배를 드릴 동안 자녀를 잠시 맡겨 놓는 장소로서의 개념 보다는 진정한 유아 중심의 예배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부모 자신이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포기하고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모가 대다수라는 점과 자녀를 선생님에게 맡길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음을 감안했을 때, 이러한 예배 형태는 자녀의 신앙교육에 대한 현대 부모들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즉, 자녀에 대한 신앙적 교육을 교회에 위임함과 동시에 과거의 권위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함께 예배하고 소통하는 신앙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더하여 자녀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신앙의 길을 걷게 하고자 하는 현대 기독교 부모들의 바람과 태도 더하여 유아

의 신앙생활에 대한 존중과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본다.

많은 연구들에서 현대 기독교 가정의 문제점으로 부모들이 가정의 신앙 교육 기능들을 대부분 교회에 위임하고 최소한의 역할만을 수행하려한다(김국환, 1997: 195; 오성주, 2004: 90; 송순재, 2007: 292-293)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 기독교 부모들은 그 어느 때 보다 유아의 발달과 교육, 그리고 신앙형성에 대한 관심 또한 높다. 위임한 것은 사실이나, 이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방임하는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 보다 기독교 유아교육의 이러한 교회와 가정의 연계성은 매우 중요하며 필수적이다(박신경, 2007: 300-301). 유아부의 함께하는 예배는 가정의 신앙교육 기능을 교회에 위임하여 가정이 그것을 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강요하는 신앙'에서 벗어나 유아중심의 '자발적인 신앙'을 키울 수 있도록 현대 기독교 가정의 특성을 긍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돕는다고 생각한다. 장화선(2002: 182-183)은 그의 어린이 신앙발달에 관한 연구에서 기독교 교육 개념에 대한 규범적 정의 및 목적 중 하나로 어린이의 자발성을 꼽고 있다. 즉, 신앙교육은 교육의 과정 가운데 어린이 내면에 있는 신앙에 대한 관심과 흥미가 자발적으로 생겨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현대 기독교 어머니들이 기독교 유아교육기관에게서 얻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자연스러운 기독교 신앙교육'(송윤정, 2007: 55)과 잘 부합된다. 따라서, 유아부 예배가 유아의 기독교 신앙교육의 중요한 책임자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더하여 부모와의 연계의 중요성을 깨닫는 동시에 부모와 함께하는 예배를 가정과의 연계에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현대 기독교 가정의 현실을 반영한 하나의 현실적이고 긍정적인 교회교육 모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바로 자녀를 중심으로 한 예배로 인해 소외되는 어머니들의 신앙적 욕구이다. 남유경(2006: 63)은 '교회학교 영아부 운영에 관한 고찰'에서 자녀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는 경우 부모들을 위한 예배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 어머니들도 함께하는 예배가 자녀의 입장에서선 좋다는 것을 알지만, 자신의 입장에서선 '갈급하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처럼, 유아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소외될 수 있는 부모의 영적 욕구들을 채워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예배 시스템까지 갖추 수 있다면, 유아와 부모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신앙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과정을 토대로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 연구의 경우 실제 기독교 유아들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의 현실적 모습과 그 의미를 드러내고 현장에 연구자가 함께 참여하여 내부자의 관점에서 유아의 신앙생활을 밝혔다. 이는 현대 유아들의 신앙생활에 대한 좀 더 현실적인 모습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지만 연구 대상이 모두 한 지역, 한 교회에 한정되어 있다는 제한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추후 다양한 지역과 교회의 특성을 반영한 유아의 신앙생활의 모습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의 경우 가정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연구자가 직접 참여하여 관찰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어머니를 통한 가정 관찰지와 심층면접을 통해 그 일면들에 대해 듣고 그것에 대한 어머니의 해석에 크게 의존한 측면이 있다. 이는 가정에서 일어난 유아의 신앙적 행동과 어머니의 반응 등에 대해서 관찰자가 직접적으로 관찰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하지만 이러한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유아의 신앙형성에 있어서 어머니의 역할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방향성을 담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논문은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게재되었거나 게재 신청되지 않았음을 확인함.”

참고문헌

- 강미라 (2011). “우리나라 교회학교 영·유아·유치부 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교육전도사의 인식과 요구도 조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 공경혜 (2008). “기독교 유아교육과정과 아기학교.” 석사학위 논문. 목원대학교.
- 김국환 (1997). “어린이 신앙교육론.” 『기독교교육 논총』, 2. 192-230.
- 박신경 (2002). “유아기의 종교성.” 『신학과목회』, 17. 281-305.
- 박신경 (2007). “기독교유아교육에 있어서 가정과의 연계의 중요성.” 『신학과 목회』, 28. 275-303.
- 박지영 (2006). “가정에서의 유아 기독교 교육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 송수정 (2010). “하나님 표상의 발달에 대한 연구: 애너-마리아 리주트를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호남신학대학교.
- 송순재 (2007). “기독교적 가정 형성의 문제.” 『신학과 세계』, 60. 281-316.
- 송윤정 (2007). “기독교인 어머니들의 기독교 유아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 조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춘화 (2008). “열방대학교 프로그램에 기초한 기독교유아교육과정 개발.”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 양금희 (2008). “영·유아의 하나님 이해와 기독교 유아교육의 방향.” 『장신논단』, 32. 111-153.
- 오성주 (2004). “기독교적 가정 종교교육에 대하여.” 『신학과 세계』, 51. 60-93.
- 이영주·엄정애 (2008).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연구』, 28(1). 91-118.
- 장순옥 (2006). “기독교 가정에서의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목원대학교.
- 장화선 (2002). “어린이 신앙발달에 관한 연구.” 『기독교교육 논총』, 8. 155-185.
- 전은숙 (2010). “영아기 신앙발달을 위한 촉진적 환경의 기독교 교육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 정갑순 (2004). “기독교가정 영·유아 부모 자녀양육에 대한 실태조사.” 『유아교육 학회지』, 8(3). 171-203.
- 정대현·유은정·정옥경 (2009). “유치부 유아의 하나님개념과 교사의 변인과의 관계: 하나님 개념, 신앙성숙도, 언어유형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교육정보학회』, 12. 369-395.
- 전정미 (2010). “유아의 영성 이해와 그 교육적 적용에 관한 고찰.” 『기독교교육정보』, 27. 383-403.
- 정혜숙 (2007). “교회학교 영아부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 정희영 (1996). “유아세례에 관한 교육적 고찰.” 『총신대학교 논문집』, 15. 221-240.
- 진명옥 (2003). “유아의 신앙발달을 위한 부모역할 연구.” 석사학위 논문. 총신대학교.
- 최병훈 (2009). “기독교 가정과 부모의 역할: 유아교육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협성대학교.

- Buchko, K., & Witzig, Jr. T. (2003). "Relationship between God-Image and religious behaviors." *Psychological Reports* 93. 1141-1148.
- Creswell, J. W. (2007).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조홍식, 정선옥, 김진숙, 권지성 역 (2010). 『질적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De Roos, S. A., Iedema, J., & Miedema, S. (2001). "Young Children's Descriptions of God: Influences of parents' and teachers' God concepts and religious denomination of schools." *Journal of Beliefs & Values* 22(1). 19-30.
- Dickie, J. R., Eshleman, A. K., Merasco, D. M., Shepard, A., Vanderwilt, M., & Johnson, M. (1997).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hildren's image of God." *Journal for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6. 25-43.
- Goldman, R. (1964), *Religious thinking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New York: The Seabury Press.
- Hertel, B. R., & Donahue, M. J. (1995). "Parental influences on God images among children: Testing Durkheim's metaphoric parallelism." *Journal of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34. 186-199.
- Jacob, E. (1987). "Qualitative research traditions: A review."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57. 1-50.
- Maselko J., & Kubzansky, L. D. (2006). "Gender differences in religious practices, spiritual experiences and health: Result from the US General Social Survey." *Social Science & Medicine*. 62(11). 2248-2860.
- McCullough M. (2001). "Religion and mortality: New data." *Harvard Mental Health Letter* 17(12), 7-8.
- Oser, F. (1980). *Stages of religious judgment*. In J. Fowler & Vergote(Eds.). *Toward moral and religious maturity*. Morristown, N.J.: Silver-Burdett.
- Wolcott, H. F. (1994). *Transforming qualitative data: Descriptio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Thousand Oaks, CA: Sage.

ABSTRACT

Ethnographic Research about Christian Young Children's Faith life in Korea

- Focusing on Mother's Faith Life, Sunday school, and Nursery room -

Si In Min(Chung-Ang University)

Mi Suk Kim(Chung-Ang University)

This study is to reveal the experience and the meaning of christian young children's faith life in Korea. We have focused on three young children who are being raised in a christian background, and have studied their attendance using participant observation method. We also have observed their attendance in the church nursery while their parents attended service on weekdays. In addition, we have carried out in-dept interview with the children's mothers to get an insight into the children's faith life placed at home.

The first conclusion of the study is that the mother's faith life style was functioning as a 'bridge' for their child. The mother's religious expressions and actions were serving as a role-model for young children. And the mother's religious values were being passed on through their child-rearing attitude on everyday events. The most interesting thing was that the mother's faith life style became a field for their children's friendship and relationship at church. The church nursery based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 and mothers were being extended outside church, which provided many opportunities for young children to meet friends and their mothers often. This enabled the children to form a sense of community and benefit from a church based social supports network. The Second conclusion is that the sunday school, which is attended with their parents, were affecting the mothers to be a more supportive parent regarding their child's religious education. The mothers who have attended the sunday school with

their child, have shown more interest in their children's religious activities that are given from church. And also were a more active communicator in case of religious conversations.

This study has shown that for christian young children today, the mother has stepped down from being a teacher of christianity but is serving a role as an supporter. Which makes the connection of church's religious education and the christian family a critical factor in young children's religious development. And that for young children, the mother's church centered life style has functioned to meet their social needs. This can be considered as a very important support for children living today.

Key Words: Christian, young children, Ethnography, church nursery, Sunday School, church, family, mother, faith life